

서사의 비타협적 금욕주의

7년 만에 발표한 배수아의 창작집 『홀』

서영채 · 문학평론가

배수아, 그 무국적이며 중성적인 세계

배수아가 7년 만에 창작집 『홀』을 냈다. 물론 창작집만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1993년 등단 이후 그는 꾸준히 책을 펴냈고, 최근 들어서도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 『독학자』(2004), 『당나귀들』(2005) 등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등단한 지 이미 10년을 넘겼고, 작품의 양뿐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도 역량 있는 중견 소리를 들어도 이젠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변태와 진화를 거듭하며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 있는 여성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 이후로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 쓰기가 뚜렷한 예이며, 이번에는 『홀』의 세계에서도 배수아의 서사가 만들어진 변신의 족적은 선명하고 뚜렷하다.

그는 종종 인물들을 중첩시키거나 모호하게 설정하고 시점을 교란함으로써 기왕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문법적 틀과 한계를 슬쩍슬쩍 벗어나 버리곤 한다. 그의 서사적 파토스는 무엇보다도 서사의 진부함을 거부하고자 하는 서사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서사의 자기 목적성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로서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나 개연성을 확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 누군가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건축적인 구성을 지닌 이야기를 축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입과 혀가 되어 우리 삶에 대해 끝없이 발성하는 것이

고, 그것이야말로 작가로서의 그의 세계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그의 소설에 시공간적인 배경이나 인물의 설정 같은 것은 중요할 수가 없다. 인물의 국적이나 성별 같은 것도 부차적이 되고, 따라서 서사의 국적이나 민족 단위의 주제의식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말 그대로 무국적의 세계, 그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중성적인 세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회색時」나 『홀』 등 그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스페란토어의 세계와도 같다. 물론 에스페란토어로도 말의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은 그 의미의 잉여를 먹고 사는 것인데, 용언의 활용도 없고 성·수·격 변화도 없는 무미건조한 세계에서 어떻게 소설이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서사의 비타협적 금욕주의가 그것이다.

「회색時」-미래안료형으로만 존재하는 서사에 관한

이야기

제목도 해괴한 소설 「회색時」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병치되어 있다. 스무 살이 넘어 채식주의자가 된 한 친구의 이야기가 그 하나다. 이 친구는 생명에 대한 극단적 존중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괴로워한다. 미각을 위해 동물들을 도살하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생태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미각과 식욕의



배수아 창작집 『허울』

배수아는 등단한 지 이미 10년을 넘겼고, 작품의 양뿐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도 역량 있는 중견 소리를 들어도 이젠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변태와 진화를 거듭하며 여전히 상상하게 살아 있는 여성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 이후로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 쓰기가 뚜렷한 예이며, 이번에 나온 『허울』의 세계에서 배수아의 서사가 만들어온 변신의 족적은 선명하고 뚜렷하다.

충동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그가 지니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그의 내적 외적 현실이 격렬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그 자신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중 화자가 20살 무렵에 만났던 매력적인 여자 수미에 관한 이야기다. 에스페란토어 학원에서 만났을 때 수미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로 인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여자였다.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고 20여 년 후에 다시 만났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인 수미와 20년 전의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미는 1983년에 격추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또 작중화자가 채식주의자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혹은 작중화자)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끝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나는 아직 수미를 다시 만나지 못했으나 이 모든 일들을 비행기 격추사고 소식을 들었던 1983년 가을날의 아침처럼 잘 기억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뒤 수미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쓰게 되었을 터였다.”(p33)

이 지점에 이르면 배수아의 소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지금 성격 이상한 채식주의자나 예쁜 여자 수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완료형으로만 존재하는 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서사의 세계에서 미래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형

『홀』의 단점은 속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만들어놓은 메마르고 건조한 리듬을 따라, 사막을 터벅이며 걷는 낙타의 걸음처럼 천천히 읽어갈 수 있는 독자들이라면, 그의 세계의 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삶에 대한 온기와 '배수아 식'의 독특한 유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화려한 만찬에 자진 독자들에게 그것은 서늘한 청량제일 수 있다.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 『독학자』(2004), 『당나귀들』(2005)

만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그런 구조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이야기꾼들의 팔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허황되고 한심한 경우인가. 그런데도 그 한심함이 서사의 골격을 이룬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매우 성기고 건조하게 배치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이므로 서사의 리얼리티나 개연성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가 그려내는 이런 풍경들은 고원처럼 서늘하고 황량하지만 그곳의 하늘처럼 또한 청량하기도 하다. 『회색』의 말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와 수미와 채식주의자, 세 명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들 세 명의 노인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식탁에는 격자무늬의 노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빵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식탁은 창가에 자리 잡았고 창문은 활짝 열려서 늦여름의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자동차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와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바람 속에 섞여 돌아다녔다. 우리는 각자 고독하게 늙어갔으며 차가운 천성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남겨두지 못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각자 혼자 있는 것이다. 혹은 우리들, 우리들 세 사람 중의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노래하고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으며 중요하지 않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어 있는 빵 바구니와 바람의 영혼뿐이다.” (p34)

이처럼 기묘하면서 청량하게 묘사된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삶의 양태에 대한 섬세한 통찰들이다. 우리는 지금 『회색』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과거의 어느 사소한 순간이 생각날 때가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갈수록 모호해지고 비현실적이 되어가는 진짜 과거와 다가올 과거의 선명함에 대한 사변이 뒤이어지고, 이는 다시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채식주의자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라는 물건과는 사뭇 다르다. 그 대신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천상을 향한 그리움이 다 무엇이더라 말이나. 맨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인간은 결코 가까이 있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p16)와 같은 통찰들이, 그리고 작중화자를 매료시켰던 인물인 수미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역학에 섬세한 관찰들과 또한,

“나를 사로잡았던 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나를 근원적으로 매료시킨 여자들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단지 몇 번 의례적으로 스쳐지나갔을 뿐이며 심지어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인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친밀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관조의 대상이며 또한 오직 그렇게 남아 있을 때만이 불변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p23)

와 같은 삶의 경험적에 대한 진술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삶의 세목들에 대해, 인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응시한 경험의 소유자만이 포착해낼 수 있는 문장들이, 성기게 짜인 서사의 틈새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서늘한 '배수아 식' 청량제

물론 그는 「우이동」 같은 단편에서와 같이 태연하고 발랄하게, 정통적인 리얼리즘의 필치로 1970

년대 서울의 서민 가족의 풍경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홀」이나 「양곤에서 온 편지」, 「마찬 방향으로」에서와 같이 인물들의 정체를 가려놓음으로써 서사의 주축이 흔들리는 서사의 유쾌한 유희를 구현해놓기도 했다. 「홀」에 등장하는 자폐적이고 금욕적인 인물들의 모습은 너무나 견고하여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물들은 대개가 경직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견인주의자들의 견고한 정신처럼 드높아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계인간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런 이중성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소설에서 고원의 황량함과 그 하늘의 청량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에 실린 아마도 가장 뛰어난 단편일 「시취」는 독신으로 고독하게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60년 동안을 가까이 살면서도 단 한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을 뿐인 한 여자의 생사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기억이 가물거려 여자의 생사에 대해 착각과 혼돈속을 오고가면서도 의식의 흐름들을 따라가며 기억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유령 같은 한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 있는 죽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죽음은 어떤 외진 곳에 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면에 속속들이 스며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죽음의 시선으로 볼 때에만 삶이 삶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홀』의 단점은 속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만들어놓은 메마르고 건조한 리듬을 따라, 사막을 터벅이며 걷는 낙타의 걸음처럼 천천히 읽어갈 수 있는 독자들이라면, 그의 세계의 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삶에 대한 온기와 '배수아 식'의 독특한 유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화려한 만찬에 지친 독자들에게 그것은 서늘한 청량제일 수 있다. 